

제7회 동북아시아지방의회의장포럼 발표자료

연해주주의회의장 고르차코브 V.V.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주최측에서 환대해주시고 손님대접이 융성한 충청남도에서 이 행사를 잘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포럼이 벌써 제7회를 맞이했고 이것은 저희 지방들이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종류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해주 주민들은 저희 도시들과 국가들 간의 우호선린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국가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세계는 광범위한 계층의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연해주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는 이웃이며, 바로 옆에 살고 있고, 최근 여러 해 동안 지리적 근접성 뿐 아니라 오래전 부터 이어져온 우정과 상호존경, 신뢰의 전통으로 인해 저희 국가들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이제는 이미 저희들에게 "terraincognita"(미지의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기쁩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관광 또는 "쇼핑" 목적으로 동북아국가들을 방문 했습니다. 아시아기업들, 즉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화학 및 식품, 자동차 및 의류업체 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주민들은 쉽게 아시아 국가들의 글자간의 차이를 분별하며 아시아음식들을 맛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해주에는 동양 언어들과 동양국가들의 국가체제 특성, 세계사와 문화의 일부가 된 그들의 전통을 공부하는 대학들, 단과대학들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동연방대학교는 일본, 중국, 및 대한민국의 우수대학교들과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및 협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과학연구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및 교수강사 교환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공동강의, 학술대회, 세미나 및 컨설팅, 초청과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간행물 및 정보교환, 공동과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학술적 출장 및 연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은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 및 서비스대학교, 네벨스크국립해양대, 극동어업대와 같은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해주 문화예술 기관들도 동북아시아 인접국들과 문화교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경선, 행사들에 일본, 한국 및 중국대표단들이 참가하는 것이 이미 전통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째 연해주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이 참여하는 INTERNATIONAL ARTS FESTIVAL(국제예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주자들은 재즈축제와 록음악축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민간참가자들입니다. 전시-미술활동분야에서도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르세네프 연해주박물관과 고리키주립도서관은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전통 응용미술전시회와 전통문화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직업적 전문가팀 및 독립 팀들은 속초시의 국제청소년창작페스티벌, 전통적인 한국청년 예술제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아태지역국가 태평양자오선 영화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연해주 주민들이 일본의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한국의 김기덕 감독 또는 중국 지아장커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톡은 아태지역국가의 경제적 특히, 문화적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은 "공통의 역사와 긴밀하게 엮힌 운명으로 저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적 대화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며 저희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해주 내에서 저희 국가들의 협력은 전망이 밝습니다. 이것은 경제 및 무역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및 문화유대 발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동북아국가들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협력 개발계획들"의 의미하는 바는 더 자주 만나고 더 활발히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호협력을 통해서 만이 우리는 서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말에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도 따라간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러분!

동양이 서양과 만나고, 독특한 방식으로 유럽문화가 아시아 문화와 만나는 저희 지역의 지리적 위치 자체로 인해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의 지역간 관광허브요 여러 다른 방향으로 관광노선이 구성되는 시작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는 극동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패키지를 개발하는 핵심 거점이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가 쾌적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잘 발전되어 있으며(현대적 공항, 지역항공사 네트워크, 해상, 철도 및 자동차교통연결, 국경통과 지점이 위치), 활발히 발달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관광객들의 흐름이 늘어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또한 현재비즈니스 관광규모에서 극동의 선두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 전시회, 회의행사 수 및 규모, 외국공식 및 비즈니스대표단들의 방문 회수에 있어서 저희 주는 극동에서 선두 위치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 전시회 행사들 중의 상당부분은 현대적인 극동연방대캠퍼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열릴 대규모행사중 하나로 5월에 개최되는 태평양관광포럼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9월초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서 제2회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해주가 러시아 극동최대의 관광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프로젝트들에 참가하시도록 초청합니다.

저희 주의 15개 지자체가 포함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프로젝트 실행은 저희 지역의 관광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8일까지 단순화된 비자 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어떤 입국지점을 통해서든 입국하여 이후 러시아 전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해주에 체류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호텔, 민속테마파크, 군사박물관, 다양한 휴양소, SPA-센터, 요양소, 아쿠아파크와 수족관, 그랜드 다이빙센터, 요트클럽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루스키섬 우선개발지역의 일환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연해주 관광분야 중요 프로젝트는



프리모리에 통합오락 휴양구역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가족휴양시설, 비즈니스 및 이벤트관광시설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게임시설도 이미 있습니다.

작년 말 최초의 카지노를 갖춘 호텔인 TigredeCristal이 개장했습니다. 프리모리에 통합오락-휴양구역은 2022년에 전면 가동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관광허브로서 연해주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블라디보스톡클러스터입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은 아태지역러시아의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거점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현대해양도시로서 전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장대한 교량들은 이미 연해주 주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연해주의 역사문화 유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유명박물관들, 극장들, 회화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도시권내에서 중요한 국제스포츠행사들, 영화제, 음악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린스키극장의 분원인 연해주오페라 발레극장이 있고,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분관이 블라디보스톡에 생기게 됩니다. 특히 독창적인 클러스터시설은 블라디보스톡 요새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이 요새는 19세기말-20세기 초에 블라디보스톡과 그 일원에 건설된 독창적인 방어시설 들의 집합체로 현재 122개 블라디보스톡 요새시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해주는 독특한 자연을 가진 지역으로 특히 **생태관광**개발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해변, 바다, 우수리스크타이가삼림, 시호테-알리냐 풍광을 찾아서 전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 주내에 표범의 땅과 우데게이스크 전설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호랑이 아무르와 염소 티무르가 살고 있는 사파리공원도 방문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는 연해주내 항공 운송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들이 가장접근이 어려운, 주내의 지역들까지도 날고 있습니다.

농업관광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젖소의 우유를 짜고 우수리스크타이가의 원료로 생산한 지역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연해주를 관광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가 어떤 일들을 더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주내에 관광-레저클러스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학 및 교통 인프라인 연해주 환상도로, 피단산 및 이주르루드 환상도로 구축 재정지원문제는 이미 러시아연방 국내 및 해외여행개발 연방특별프로그램에 포함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전체 민간 투자규모는 43억 루블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실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과 연해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유항 내에는 국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는 저희지역의 명승지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저희 주에 연해주 관광안내센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연해주 관광시설과 노선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접국의 문화를 알게 됨으로써, 저희는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고, 중요한 점은 서로의 유대관계에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신뢰가 없이는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일본말처럼 지금까지 저희는 우호선린의 튼튼한 교량을 놓았고, 저희국가들이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극동과 연해주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보여드릴 것과 제공해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님을 대접할 줄 압니다. 이 포럼에서 저희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통합된 관광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성과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경제적인 유대가 급속히 강화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대중매체가 확장되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가치교류가 널리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운명이 하나의 전세계적인 운명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운명이 행복할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손안에 있습니다. 저희포럼의 엠블럼이 이를 아주 잘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